**한국지엠, 9월 총 13,750대 판매**

*-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582대 판매되며 내수 실적 리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전*

*- 쉐보레 콜로라도 내수 판매, 전년 대비 366.9% 증가… 3개월 연속 상승세*

2021. 10. 1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가 9월 한 달 동안 총 13,750대(완성차 기준 – 내수 3,872대, 수출 9,878대)를 판매했다. 한국지엠의 9월 내수 판매와 수출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칩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의 여파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기록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9월 내수 시장에서 총 1,582대 판매되며 한국지엠의 9월 내수 실적을 리드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6,295대 판매되며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세를 기록, 뛰어난 상품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소형 SUV 시장 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쉐보레 콜로라도의 9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66.9% 증가한 총 579대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콜로라도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 기준 올해 1~8월 누적 등록 2,552대를 기록, 수입 픽업트럭 시장 내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지엠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시저 톨레도(Cesar Toledo) 부사장은 “코로나 19와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도 쉐보레 브랜드의 대표 모델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큰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가을 시즌을 맞아,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고객들을 응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쉐보레는 10월, ‘쉐보레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트래버스, 말리부 구매 고객에게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또는 할부와 현금 지원이 결합된 콤보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에게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고객들의 지친 마음을 응원하고자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트래버스, 말리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엠은 2002년에 설립됐으며, 1만 여명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2020년 국내시장에서 8만 2,954대를 판매했으며, 전 세계에 완성차 28만 5,499대를 수출했다. 한국지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지엠 홈페이지([www.gm-korea.co.kr](http://www.gm-kore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문의**

한국지엠 유승윤 차장 [seungyoon.ryu@gm.com](mailto:seungyoon.ryu@gm.com) / 010-5428-8493

웨버샌드윅 최수빈 부장 [LChoi@webershandwick.com](mailto:LChoi@webershandwick.com) / 010-3440-4737

웨버샌드윅 정현수 차장 [KJeong@webershandwick.com](mailto:KJeong@webershandwick.com) / 010-3000-7345

**웹사이트**

<https://media.gm.com/media/kr/ko/chevrolet/home.html>

**<참고: 한국지엠 9월 판매 실적 테이블>**

